#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주일 가정예배

(7월 26일 주일)

인도: 가족대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일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 | |
|---|---|---|
| 기 원 | …… | 인도자 |

"주일 오후 찬양예배를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 | | | | |
|---|---|---|---|---|
| 신앙고백 | …… | 사도신경 | …… | 다함께 |
| 찬 송 | …… | **22장(통 26장)**<br>**만유의 주 앞에** | …… | 다함께 |
| 기 도 | …… | | …… | 맡은이 |
| 성경봉독 | …… | **고린도전서 1:11-13, 17** | …… | 맡은이 |
| 말씀나눔 | …… | | …… | 맡은이 |
| 합심기도 | …… | **준비된 기도제목에 따라** | …… | 맡은이 |
| 찬 송 | …… | **76장**<br>**창조의 주 아버지께** | …… | 다함께 |
| 주 기 도 | …… | | …… | 다함께 |

**본문** **고린도전서 1:11-13, 17**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 말씀나눔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의 끝 무렵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서, 1년 반 정도 체류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두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고린도교회가 가진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은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린도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를 유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은사도 다양하다보니, 각자 신앙적 관점 및 입장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무슨 행위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갈등을 빚었으며,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고린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10절). 고린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힘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하면 어떤 생각과 입장의 차이도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시며,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바울은 문제의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교회에 예수님이라는 기준을 마련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서로 자신이 옳다고 다투거나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에 힘쓰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합심기도 제목

①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되기에 힘쓰는 가정되게 하소서.
②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연합되는 새문안교회가 되게 하소서.
③ 새문안의 성도들이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시대적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소서.
④ 코로나19의 재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교회됨의 본질을 잊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⑤ 지금도 고통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세계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통 26)

# 만유의 주 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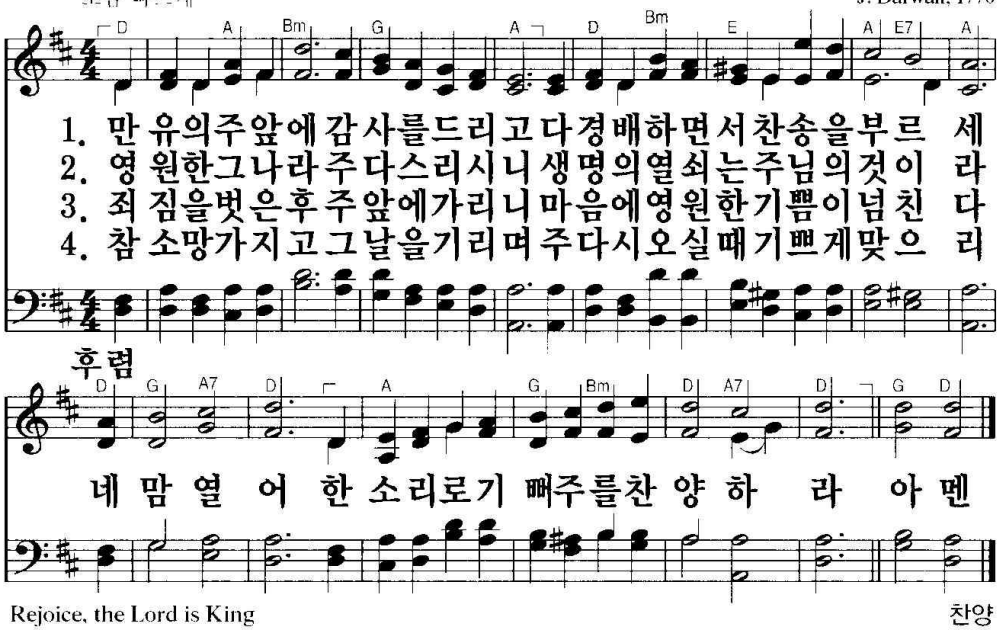
22

C. Wesley, 1746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고전 15:52)

DARWALL: 6.6.6.6.REF.
J. Darwall, 1770

조금 빠르게




Rejoice, the Lord is King

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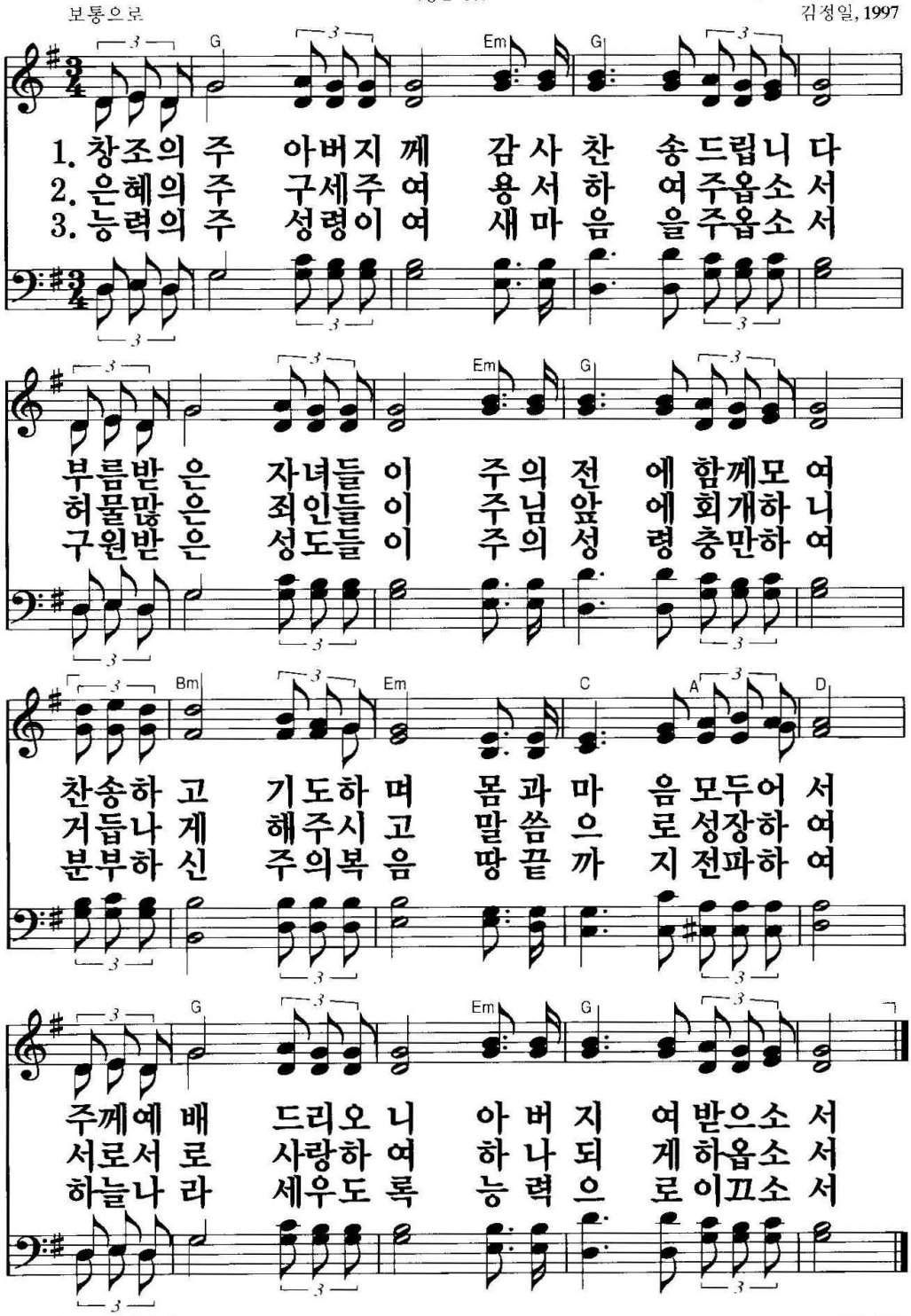
# 76 창조의 주 아버지께

이용원, 1979

하나님을 찬미하며
(행 2:47)

찬송과 기도: 8.8.8.8.D.
김정일, 1997

보통으로




창조의 주 아버지께

창조주